

〈치료탑〉이라는 예계(豫戒)

-오에 겐자부로 『치료탑』 · 『치료탑 혹성』 론-

송인선*

(e-mail: insunsong@hanmail.net)

목 차

1. 머리말
 2. 과학의 진보 혹은 타락
 3. 우주식민과 ‘걸프전’의 우화
 4. 〈치료탑〉의 함의
 5. 맺음말
-

1. 머리말

오에 겐자부리가 1990년대 초에 발표한 SF소설 『치료탑』(1990)과 『치료탑 혹성』(1991)에는 흔히 ‘근미래(近未來)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즉, 두 작품이 공상과학을 다룬 SF소설이기는 하지만 시대적 배경은 집필 시기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가까운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소설 속에서 과거는 〈전 세기(前世紀)〉로, 현재는 〈금세기(今世紀)〉로 종종 언급되고 있어 이 작품의 집필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기’가 바뀐 시점, 다시 말해 불과 21세기의 어느 때쯤이 예의 ‘근미래’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작중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비록 산성비의 영향으로 손상을 당하기도 했어도 히로시마의 원폭 돔이 아직 골조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의 세월이 지났을 뿐인 ‘가까운’ 어느 미래의 ‘병든 지구’와 ‘새로운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일본 근·현대문학 전공

혹성'이 두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에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상은 척박하고 암울하다. 인류의 미래를 경고하는 히로시마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국지적 핵전쟁과 원전 사고 등으로 먹거리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고, 자원의 고갈과 자연재해로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막다른 곳에 몰린 인류는 또 다른 혹성에 <새로운 지구>를 건설하고자 우주식민에 나서게 되지만, 갈 수 있는 인구는 고작 전 지구에서 백만 명에 불과하다. 즉, 모든 면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세계 각국의 이른바 <선택받은 자> 백만 명만이 <스타십>이라는 우주선으로 지구를 탈출할 수 있을 뿐이다. <치료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치료탑』은 <선택받은 자>들이 우주식민에 실패하고 지구로 다시 귀환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치료탑 혹성』은 『치료탑』의 후속 이야기이나, 결국 두 작품 어디에서도 성공리에 우주 식민지가 완성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두 작품은 우주 규모의 유토피아 건설을 둘러싼 활약담이나 S.F.의 낙관적 미래도를 그려보이는 데에 중점이 놓여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치료탑> 시리즈는 무엇보다도 오에가 독자에게 보내는, 지구의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예계(豫戒)로서 읽어야 할 소설이다. 후술하겠지만, 오에는 『치료탑 혹성』에서 예계로서의 소설의 기능을 드러내어 적시하고 있는데, '타이태닉호'의 침몰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즉, '타이태닉호'의 침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조건이나 상황이 비슷한 '타이탄호'라는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이야기가 그려진 소설이 나왔었고, 이는 장차 일어날 '타이태닉호' 침몰 사건의 예계였다는, 한 종교사학자의 글을 소설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¹⁾

본 논문은 SF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 그려지는 <치료탑> 시리즈의 두 작품이야말로 작가가 근미래의 독자에게, 혹은 2011년 후쿠시마 재해의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발신한 일종의 '예계로서의 소설'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예고하며 어떠한 점을 경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가가 S.F.라는 장르를 통로로 과학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현대문명을 어떠한 시각에서 포착하고 있는지 등장인물의 조형과 함께 살펴보고, 끝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 가공의 구조물 <치료탑>의 다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추출할 것이다. 또한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이 발표되는 사이에 가시화된 냉전의 종식과 걸프전의 발발이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

1) <치료탑> 시리즈에는 1914년 '타이태닉호'의 침몰을 예계했다는 소설의 제목이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실제로 1898년에 출간된 모건 로버트슨의 『Futility』라고 짐작된다.

이안 해리슨, 이경식 역 『마지막에 대한 백과사전』 휴먼앤북스, 2007, p.233 참조.

2. 과학의 진보 혹은 타락²⁾

〈치료탑〉이란 〈선택받은 자〉들이 우주식민 계획의 대상지였던 혹성, 이른바 〈새로운 지구〉에서 발견한 돔 형태의 구조물이다.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혹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기의 탑이 발견된 것인데, 우연한 기회에 그 불가사의한 공간 안에 들어갔다 나온 〈선택받은 자〉들은 탑의 내부 공간이 지닌 놀랄만한 치유와 회복의 힘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은 죽은 자는 회생하고 병든 자는 치유되며 늙은 자는 젊음을 되찾게 하는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 신비한 재생 능력으로 인해 이후 수수께끼 같은 건축물은 〈치료탑〉이라 불리게 되었고, 〈선택받은 자〉들이 우주로부터 귀환해 온 이후, 지구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존재가 알려지게 된다. 독자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건인하는 비밀 저장고 〈치료탑〉은, 인류의 멸망과 재생을 둘러싼 두 작품의 이야기 전개에 필수불가결한 구성 요소이다. 인간의 지력을 뛰어넘는 우주의 최고 지성체, 혹은 엄청난 관리체계를 갖춘 초대형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추측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SF적인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또한 끝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월적 공간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해당 작품에 신비적 색채를 덧입힌다.

오에에게 있어 SF는 일찍부터 지구 종말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1963년에서 65년 사이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찾아 피폭자들을 접하고, 그 체험과 느낌을 『히로시마 노트』라는 에세이집으로 남기고 있다. 작가는 그 글에서 “예전에는 종교적인 설화 속에 숨어 있었던 세계 종말의 이미지가, 20세기 후반인 지금은 공상과학소설에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와 함께, 19세기 이전의 종말의 이미지에겐 어딘가 모르게 유예의 느낌이 있었지만, 20세기에 일어난 히로시마의 피폭 경험은 “진정한 세계 종말의 최초의 징후”일지도 모른다면, 방사능에 의한 “본질적인 파괴”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³⁾ 『치료탑 혹성』의 모두(冒頭)와 결말에 히로시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히로시마 노트』로부터 이십여 년이 지나서 집필된 이 SF에서 그려지는 지구의 위기가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듯 히로시마의 재앙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뿌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오에가 작가 홋타 요시에(堀田善衛)에게 보낸 편지 중 ‘과학의 진보—혹은 타락—(科學の進歩—あるいは墮落—)’이라는 구절이 있다. 大江健三郎 「核時代のユートピア—堀田善衛氏への四通の手紙」 『小説のたくらみ、知の楽しみ』新潮社, 1994, p.221 참조.

3) 大江健三郎 『ヒロシマ・ノート』岩波書店, 1999, pp.184-185. 번역은 『히로시마 노트』(오에 겐자부로 저, 김춘미 역, 고려원, 1995, pp.293-295)에 의함.

지금은 자연의 은총인 푸성귀, 천연 물고기 같은 것들은 손에 넣기 어려우니까. 더구나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말하자면, 핵전쟁이 초래한 재앙은 말할 나위도 없고, 세기말에 계속 터진 원전 사고의 영향이나, 대출발과 그 후의 혼란기에 가속적으로 악화된 환경 파괴의 결과가 대기를 채우고 있다.(p.194) 4)

사이언스 픽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두 작품에서 제시되는 현대 과학문명의 얼굴은 마치 핵(核)에너지가 지닌 상반된 두 가지 효과처럼 이중적이다. 20세기 과학문명의 총체적인 결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자력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꿈의 에너지로서 풍요와 쾌적함을 가져다줄 수도 있으나, 가공할만한 파괴력으로 지금까지의 문명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화할 수도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버리고 떠나는 지구는, 바로 그 ‘핵’으로 대표되는 현대 과학문명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있다. 반면, 두 작품에서 과학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태양계 너머에 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게 하고 급기야 인류의 구원과 어쩌면 영생(永生)까지도 가능하게 할 〈치료탑〉의 비밀 해독에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그려지고 있기도 하다. 빈사 직전의 지구를 되살리고 어쩌면 인류에게 마지막 구원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치료탑〉의 코드 풀이가 〈과학〉의 힘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인간의 지력과 그로 인한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 과연 ‘진보’인가 ‘타락’인가를 둘러싼 양가적인 시각을 대표하는 인물이 각각 〈시게(繁)〉와 〈다카시(隆)〉 형제이다. 오에의 작품에서 양의성은 종종 상반된 성격의 2인조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타의 작품들에서처럼 〈치료탑〉 시리즈에서도 이러한 ‘2인조’는 형인 시게와 동생인 다카시라는 익숙한 구도로 반복되고 있다. — 대비되는 두 유형의 인물이 동일한 부모를 가진 형제라는 설정은 어쩌면 이항대립적인 쌍(雙)의 근원에 존재할 수도 있는 동질성 혹은 상호 보완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5) — 다만 『치료탑』 초반부에 일찌감치 시게의 죽음이 설정되어 있어, 이후 시게의 세계관은 시게의 동료이자 다카시의 친구인 코(埗), 그리고 두 형제의 어머니—작중에서는 화자(話者) 리쓰코의 입장에서 ‘할머니(祖母)’로 불리고 있다—와, 두 작품의 화자인 리쓰코 등 다수의 인물들에 의해 계승·대변되고 있다. 우주

4) 텍스트 인용은 『大江健三郎小説 6』(新潮社, 1996)에 의하고, 이하 본문 중에 페이지 수만 기입하기로 한다. 또한 인용문 중의 강조점은 원문에 의하고,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5) 엘리야테는 이처럼 양극단의 원리의 화신이 되고 있는 두 인물에 공통의 ‘아버지’를 부여하는 신화가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엘리야테,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7, pp.528-529 참조.

개발을 총지휘하는 〈세계 스타십 공사〉 일본 본부의 총재 다카시가 현대 과학문명의 체현자이자 옹호자라면, 시게는 비판적 문명관의 소유자로서 스타십 공사가 추진하는 〈대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다. 〈대출발〉 계획이란, 전술했듯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뛰어난 백만 명의 〈선택받은 자〉 들만이 우주선 〈스타십〉에 탑승해 〈새로운 지구〉로 이주하는 계획을 말한다. 〈대출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버리고 떠나는 이 지구가 머잖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대출발〉 이후의 지구에서는 잔류자들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생산 시스템이 전파되는데, 그러한 ‘지구 재건운동’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시게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산시스템이란, 고도한 것보다는 고도하지 않은 방향,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방향을 선호하며, 원시적인 유용성과 소규모 수공업을 지향하는 이른바 〈KS시스템〉이다.

무엇보다도 과학 테크놀로지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도구적 이성에 대한 두 사람의 대조적인 태도는, 인류가 도달해도 좋은 문명의 한계선 설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치료담』에서 시게는, 〈대출발〉이 기획되던 단계에서 일어났던 케이프 카내베탈 기지에서의 로켓 발사와 연이은 폭발 사고가, 인류에게 보내는 〈우주의지〉(p.192)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 바로 몇 초 후에 쾡하고 폭발하자, 때마침 카메라가 포착하고 있던 우주 비행사의 가족들이, —Oh, No!라고 외쳐. 그 순간, TV중계를 보고 있던 서방 세계 전역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이지, 비극적인 감정이 획 줄달음쳤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감정은 심오한 곳에서 울랐던 거야. 그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도달한 것은, 인적 피해를 최소로 억제한 우주의치로부터의 경고였던 거지. 난 말이야, 그것을 기회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시도는 모두 단념해야 했다고 생각해. (p.192)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 폭발사건⁶⁾이 모델일 것으로 짐작되는 케이프 카내베탈 기지의 로켓 폭발 사건을 계기로, 시게는 인류가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우주의지의 경고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관은 『치료담 혹성』에서 화자 리쓰코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곰

6)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유인왕복 우주선 챌린저호가 케이프 카내베탈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직후에 공중 폭발해 승무원 일곱 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날 챌린저호 발사 광경은 미국 전국에 TV로 생중계되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챌린저호가 발사 75초 후에 플로리다의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로 변하는 모습과 흰 연기를 끌며 파편이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경향신문』 1986, 1, 29, 5면 참조.

(<http://newslibrary.naver.com/?articleId=1986012900329205002&editNO=2> (검색일: 2011, 8, 31))

《돌이 푸》에 그려져 있던 〈통행금지〉 팻말이 혹시나 인류에게 더 이상의 우주 영역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는 의미로 보낸, 신(神)의 〈예계(豫戒)〉가 아니었을까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는 장면으로 발전해, 두 작품을 관통하는 비판적 문명관을 대변하게 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통행금지〉의 예계에 대해 리쓰코가 ‘코 아저씨’와 주고받는 대화이다.

내가 떠 올린 것은 《곰돌이 푸》에서, 푸가 혹시 자기 조상의 이름이 적혀 있는 표찰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망가진 〈통행금지〉 팻말. (중략) 그 수많은 아이들이 본 책의 사랑스러운 삽화에, 우주적인 지성체가 제시하는 〈통행금지〉가 진작부터 그려 넣어져 있었던 거라면……. 그것과 함께 나는 그 시절, 기숙학교 성당의 신부님이, 신(神)은 우리에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르침을 줄 때가 있다, 그것을 〈예계〉라고 한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361)

그건 아무래도 인류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일 것 같긴 한데 말이야, 릿짱, 만약 우주의 지성체가, 지구에서 이미 머리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가진 민감한 상대에게, 그것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계〉를 제시해두려 한다면,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의 삽화 안을 생각한 것은 좋은 착상이로군.(361)

이처럼 시게나 ‘코 아저씨’가 우주의지에 귀를 기울이는 비판적 문명관의 대변자로서 인류의 우주 진출에 반대했다면, 반면 다카시는 〈새로운 지구〉에서 인류의 문명을 이어나간다는 포부를 안고 떠났다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구로 귀환한 인물이다. 그는 귀환 후에도 시게와는 달리 재차 우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일에 인류의 장래가 걸려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p.253)고 믿는, 진취적인 우주 개발론자이다. 그는, 형 시게가 문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원시적인 수공업의 방향으로 추진했던 〈KS시스템〉을 다시 예전처럼 전문화·분업화로 환원시켰으며, 기술 혁신과 자동화의 효과를 노동 로봇의 생산성으로 현시하는 전문 과학기술 관료이다. 또한 최고의 도구적 이성을 양성하기 위한 〈신세대 육성 플랜〉(p.306)의 일환으로, 우주로부터의 귀환자와 잔류자 사이의 결혼을 금지해 유전자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려 하는가 하면, 〈치료탑〉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혀내, “인간의 힘으로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기”(p.309)를 기대하는 도전적인 야심가로 조형되어 있다.

다카시를 비롯하여 다카시의 아들인 우주 파일럿 사쿠 등, 〈새로운 지구〉

에서 귀환한 〈선택받은 자〉 들은 모두 〈치료탑〉의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원래는 화자인 리스크보다 열다섯 살 연상인 사쿠가 귀환 후에는 리스크보다 젊어 보이고, 몸에서는 말그레한 미광까지 감도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치료탑』에서는 〈치료탑〉의 이러한 가공할만한 생명력의 효과가 지속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 어떠한 언급도 없어, 재생 효과가 영구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귀환 후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시작되는 『치료탑 흑성』에서는, 사쿠가 “머리는 더부룩하”고 “뽀얗고 말그스름하게 빛나던 것 같던 미광도 사라지고 없”는 “아저씨”(p.322)로 묘사되고 있어, 〈치료탑〉의 재생 효과가 한시적임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치료탑〉에서 육체조건을 개선한 〈선택받은 자〉 들은 당시로서는 그 효과의 한시적인 성격을 모른 채, 비록 〈새로운 지구〉에서의 정착에는 실패했지만 새롭게 개조된 육체조건으로 지구를 재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구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3.우주 식민과 ‘걸프전’의 우화

종말의 위기에 처한 지구의 미래그림 〈치료탑〉 시리즈를 작가가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예계〉로 읽었을 때,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미래의 위기는 곧 현재의 위기와 무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위기는 작가가 그리는 종말의 비전에 대한 밑그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여겨진다. 작품속의 위기들은 이를테면 차별과 지배, 감시와 관리, 불모와 폐허의 환경, 부(富)와 정보의 독점 등 동시대의 우리에게도 매우 가까이 있는 위기들이다. 두 작품에서 그러한 위기적 상황들은 〈오래된 지구〉와 〈새로운 지구〉 양 쪽을 모두 무대로 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흑성에서 펼쳐지는 낮익고 익숙한 ‘위기’의 정경들은 그것이 지닌 이공간성(異空間性)으로 인해 우화적인 성격을 더한다. 더욱이 낮익고 익숙한 위기들이 동시대의 시사적 계기를 포함할 때 우화성은 더 짙어지는 법인데, 『치료탑 흑성』의 경우는 걸프전⁷⁾이 그러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치료탑 흑성』은 여전히 과학을 신뢰하는 다카시가 자신의 아들인 우주 파일럿 사쿠를 리더로 하는 새로운 우주선단을 파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7) 1990년 8월에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에 반발해 1991년 1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습함으로써 시작된 전쟁. 일본은 자위대를 직접 파견하지는 않았으나 130억 달러를 다국적군에 지원했다.

미국과 일본의 스타십 공사가 주축이 된 이 우주선단은 이른바 <타이탄 프로젝트>를 위해 구성되었다. 지구에도 예의 <치료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구>로부터 <치료탑> 관련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한 통신 시설을,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타이탄’에 설치하는 것이다. 위성 타이탄에 설치될 통신시설은 <새로운 지구>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다시금 지구로 증폭 중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치료탑』에서는 귀환자인 사쿠가 잔류자인 리쓰코와 결혼을 감행하는 등, 아버지인 다카시와 맞서며 시계의 비판적 문명관 쪽으로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치료탑 흑성』에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 타이와 아내 리쓰코를 남겨 둔 채, 사쿠가 재차 우주선에 탑승해 의구심을 남긴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우주행을 감행하게 된 것은 공사 수뇌부의 <타이탄 프로젝트>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서였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다. 즉, 타이탄 통신 시설 설치를 주도한 미국과 일본,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차지해, 장차 <치료탑>을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는 우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향후 세계의 지배와 주도권을 둘러싼 논의에서, <전 세기(前世紀)>에 있었던 냉전구도가 소설 속 ‘현재’ 혹은 ‘미래’의 미국 독주시대와 대비되어 언급되고 있다.

사쿠군은 말이지, 미·일 스타십 공사 협동의, 그리고 일단은 세계가 모두 합의한 사업이라고 떠벌려진 이번 타이탄 계획이 비밀 협약에 기초한 폐쇄적인 것이라는 데 위기감을 품었던 거야. / <새로운 지구>에서 보내는 <치료탑>에 관한 정보를, 우선 이 나라와 미국의 스타십 공사가 필터로 걸러낸 후, 밖으로 내보내도 괜찮은 것만 세계로 흘린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독점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쿠군은 깨달았던 거지. (pp.351-352)

전 세기(前世紀)말의 한 시기에 미·소가 각각 수폭을 보유해 전 지구를 지배했던 것처럼 말이야, 미국이 <치료탑>을 독점하여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벌리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구.(p.352)

평론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도 두 작품 사이의 변용을 지적하고 있지만⁸⁾ 『치료탑』이 미국과 소련을 양극으로 하는 고전적 냉전구도의 세계 속에

8) 小森陽一「未來の經驗—大江健三郎『治療塔』と『治療塔惑星』をめぐって」『文學』 岩波書店, 第3卷 第2号, 1992, 春號, p.27 참조. <치료탑> 시리즈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치료탑』에 그려진 에이즈 환자의 인권이나 에이즈 표상을 문제 삼은 木村功「エイズの表象」(『日本近代文學』 第63集, 2000年 10月), 세계의 위기와 지구 종말에 대한 민감한 공포심에 주목하는 川本三郎「『治療塔』へ—恐怖のフォークロア」(『國文學』 第35卷第8号, 學燈社, 1990年7

아직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치료탑 혹성』에서는 이미 냉전체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와 독주, 혹은 거기에 가담하는 모양새로 기지개를 켜는 일본의 팽창주의가, ‘가까운 미래 사회’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하나로서 암시되고 있다. 이는 흔들리던 냉전구도가 『치료탑』(1990)과 『치료탑 혹성』(1991)의 집필 사이에 실제로 구체적인 와해의 길로 치닫고, 『치료탑 혹성』이 연재되는 와중에 일어난 걸프전쟁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 쪽에 가담함은 물론, 이 전쟁을 계기로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의 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길이 트이게 되는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⁹⁾

『치료탑 혹성』에서 〈새로운 지구〉라는 혹성은 마치 걸프전의 배경이었던 석유의 땅 페르시아 만(灣)을 연상시킨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선단의 동선(動線)은, 애초에 계획했던 타이탄 위성에서 멈추지 않고 채차 〈새로운 지구〉에 착륙해, 그곳의 주민들과 엄청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 이때 이들이 착륙한 『치료탑 혹성』의 〈새로운 지구〉는 『치료탑』과는 달리 “무진장한 것은 석유뿐”(p.412)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치료탑 혹성』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인류의 우주 진출 그 자체가 식민주의라는 근대적 지배 체제를 연상시키도록, 계산된 단어가 선택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예를 들면, 지구촌 규모의 “우주식민”(p.376) 계획인 〈대출발〉이 실패로 끝난 후, 난치병 환자들이 지구 이곳저곳에서 비합법적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 〈치료탑〉 순례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때 리쓰코의 상상 속에서 그들은 마치 미국 서부에서 인디언을 몰아내고 이루어졌던 “골드 러쉬”(p.374)와도 같은 광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북미 신대륙 식민지에 뉴잉글랜드 혹은 뉴암스테르담 같은 식민자의 이름을 붙였듯이, 〈새로운 지구〉의 특정 지역들은 “좋은 나라 프랑스 대(帶)”(p.407), “신황하”(p.410) 등과 같이 익숙한 지구의 지명이 붙여져 불리고 있다.

그리고 난치병의 치료를 위하여 불법 우주선으로 〈새로운 지구〉에 들어가 〈치료탑〉이 있는 앰피레오 고원을 멋대로 차지한 무리—〈새 이주자〉—들

月), 화자인 리쓰코의 에이리언성을 젠더의 관점에서 언급한 小谷眞理「解説」(『治療塔惑星』講談社文庫, 2008) 등이 있다.

9) 1991년의 걸프전쟁 당시 일본은 직접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로 참전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지역에 대해 [평화유지활동(PKO)]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비록 소해(掃海)부대의 파견이었지만 사실상 자위대의 첫 해외 파병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와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등 일본의 학자들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한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전후의 양상이 크게 바뀐 것을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 일본의 걸프전 참전 시점에서 전후(戰後)는 확실히 끝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岩崎稔ほか編『戦後日本スタディーズ3』紀伊國屋書店, 2008年, pp.26-28 참조.

이, 미·일 우주선단을 향하여 <엠펜레오 고원 선주민> 입을 자처하며 기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 자칭 선주민들의 ‘선주’ 권리는 수긍할 수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작 『치료탑』에서 <선택받은 자> 들이 우주 이주에 실패하고 지구로 귀환할 당시, <반란군> 이라는 이름으로 잔류를 선택한 무리들이 이미 <새로운 지구> 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바르’라는 이름의 대령이 이끄는 그들 집단이 <반란군> 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들이 <치료탑> 의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즉, <치료탑> 의 신비로운 재생력이 알려진 뒤, <새로운 지구> 의 최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치료탑> 을 방문해 생명력을 갱신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산바르 대령과 <반란군> 은 “<치료탑> 을 경험하지 않고 자연스런 삶과 죽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원리로”(p.423) 삼고 이에 불복했던 것이다. 이후 그들은, <선택받은 자> 들이 우주 이주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구로 귀환할 때에도 <새로운 지구> 에 남는 길을 택했고, 『치료탑 혹성』에서 사쿠의 우주선단이 재차 혹성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치료탑> 과는 상관없이 자급자족의 공동체를 영위하고 있었다. 요컨대, <반란군> 들이 <치료탑> 을 방기하는 사이에, 지구에서 불법으로 쏘아 올린 민간 우주선을 타고 난치병 환자들이 엠펜레오 고원으로 들이닥쳐 부당한 ‘선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들 자칭 선주민들의 식량은 <반란군> 들의 공동체에서 나온 잉여 생산물에 의존하는 상태였다. <치료탑> 을 놓고 그들 <새 이주자> 들과 우주선단의 방위책임자인 미국의 올튼 대위 사이에 벌어지는 공방전은, 그 어느 쪽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쿠웨이트를 두고 이라크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연상케 하지만, 이미 그보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시아를 두고 벌여졌던 일본과 미국 사이의 식민과 침략, 응징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치료탑 혹성』에서 올튼 대위에 의한 엠펜레오 고원의 원폭 피폭 장면은 자동카메라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①시간을 두지 않고 섬광, 카메라는 일시 해상력을 잃는다. / 30분 후. 다시금 카메라가 비춘 엠펜레오 고원의 가장자리 일대는 핵폭발로 변형되어 있었고, 사람의 모습은 물론, <치료탑>도 보이지 않는다. 어제 작업에서 조사 장치를 부착한 <치료탑>의 오분의 삼이 발신력을 잃었다. (중략) / 올튼 대위의 작업선은, 엠펜레오 고원 앞쪽의 폐허에서 안쪽 깊숙이 진입한다. 카메라가 생존자를 비추는데, 피와 피부를 넘마처럼 늘어뜨린 이들의 모습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가 어렵다. 그들은 열선으로 화상을 입어 시커멓게 부은 몸을, 입구가 매몰되지 않은 <치료탑>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상처

입거나 혹은 심지어 사망한 동료를. 그야말로 히로시마의 기록 사진 같다.(p.434)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첨단 핵무기로 〈새 이주자〉들과 앰피레오 고원 쟁탈전을 벌이는 올튼 대위의 활약상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징벌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이라크에 가한, 마치 전자게임과도 같은 무차별 첨단 공습을 방불케 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걸프전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가 언급되어 있는 자료의 일부이다.

1991년 이라크에 대한 공중전에서 약 20만의 이라크인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 하부 구조가 파괴되었다. 피해 상태를 조사한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파견된 한 사람에 의하면, 이라크는 산업 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만큼 파괴되었다고 한다. / 이 전쟁의 목적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더 큰 목표는 분명히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군사적 경쟁자인 이라크를 파괴시키며, 페르시아만의 기름을 통제하기 위한 쿠웨이트 주둔 미국 영구 군사 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¹⁰⁾

걸프 전쟁에서 비록 핵병기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무차별 용단 폭격이 초래한 파괴상이 어느 정도였으며 그러한 희생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위의 인용문은 명시하고 있다. 히로시마로 종결된 20세기 아시아의 상황과 이라크의 초토화로 막을 내린 페르시아 만의 상황, 〈치료탑〉의 지배권을 둘러싼 〈새로운 지구〉에서의 미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위의 인용문들은 환기한다. 이처럼 냉전구도는 붕괴되었으나 세계 지배 전략을 뒷받침하는 무력 확대는 여전하고¹¹⁾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편승하여 일본 역시 재차 팽창주의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당시 오에의 위기의식이, ‘석유가 풍부한 〈새로운 지구〉와 〈우주식민〉’이라는 우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다.

10) 로즈마리 레드퍼드 류터, 전현식 역, 『가이아와 하느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pp.135-137

11)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양체제의 공존-냉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핵병기를 포함한 양 진영의 무기의 균형-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90년 고르바초프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대폭 삭감하면서 더 이상 소련을 미국의 상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미·소를 양극으로 한 냉전의 근거도 무너졌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듬해 1991년의 연방정부 예산에는 5대의 신형 스텔스 폭격기, 스타 워즈 연구개발, 핵잠수함 등 여전히 163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방위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의 책, pp.135-136 참조.

또한 <새 이주자> 들의 선주 권리 주장과 관련하여 첨언하자면, 스스로를 <새로운 지구> 의 선주민이라고 자처하는 <새 이주자> 들에게 선주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반란군> 들보다 늦게 그 별에 입주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치료탑』에서 사쿠가 전한 <새로운 지구> 의 첫 모습은 이미 지의류(地衣類)가 생존하는 별이었다. 또한, 강기슭에 지구에서 가져간 칩쌀을 뿌리자 “이상하리만치 번성”(p.211)하는 별이었다. 이는 생명을 길러낼 토양을 갖춘 유기체로서의 혹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치료탑 혹성』에서 그 혹성은 이미 <새 이주자> 들이 도착하기 전, 칩닝쿨과 플랑크톤, 심지어 담수 고래 등 몇몇의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상태로 변해 있다. 오랜 세월 스스로의 생명을 영위함으로써 혹성을 살려 왔던 선주 생물들의 존재를 무시한 채, 자신을 이용과 파괴의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서 의식하는 태도는, 다른 아닌 자연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복 지향의 세계관에 물든 인간중심의 태도이다. 따라서 <새 이주자> 도, <미·일 합동 우주선단> 도, 그들이 <새로운 지구> 에 대해 지배권을 염두에 둔 우월적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는 한, 그들은 자연 위에 군림하며 자연을 식민지화하는 식민자로서의 인류의 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치료탑> 의 함의

4.1 <치료탑> 과 예이츠

<치료탑> 은 죽은 자를 살리고 늙은이를 젊어지게 하는 신비하고 초현실적인 상상물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어떤 “우주적인 규모의 지혜”(p.353)가 <새로운 지구> 그 너머로 인류가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기로 결정한 후, “봉쇄당할 인류를 위한 보상으로”(p.360)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혹은 “이미 멸절해버린 자들로부터의 유증(遺贈)”(p.396)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시도가 이어지지만, 외딴 혹성에 수수께끼처럼 세워져 있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지, 또한 그것이 지닌 신비한 재생력의 원리는 무엇인지, 핵심적인 비밀이 끝내 규명되지 못하고 작품이 끝나버려, 결국 이 SF에서의 <치료탑> 은 ‘과학’이 아니라 ‘신비’의 덩어리로 남는다.

어쩌면 것처럼 미해결의 상태로 남게 되는 신비적인 요소 때문에 굳이 외계라는 공간 설정과 거기에 더해 작중 예이츠라는 시인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작품 중간에 빈번히 인용되는 예이츠의 시는 <치료탑> 시리즈

에 핵심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내용 전개와 의미 전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온갖 요정과 혼령이 등장하는 전설과 신화의 땅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가 신비 사상과 밀접한 시적 세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비 철학을 체계화한 『비전』이라는 저작물까지 따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오에의 〈치료탑〉 시리즈의 독해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신비 사상은 예이츠의 시 세계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다. 예이츠는 신비술 교단에 가입하여 신비술과 심령과학의 실제 체험을 하기도 했다.¹²⁾ 또한 자신이 구축한 신비로운 철학 체계를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원추형 모델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이어(環)라고 이름 붙여진 그 더블 원추 모형이 『치료탑』에 직접 그림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예이츠의 시 세계는 “역사적 법칙과 사실이 초자연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환상 속에서 생동하”¹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료탑〉 시리즈에는 「양치기와 염소치기」 「아일랜드 비행사, 죽음을 예견하다」 「탑」 「채림」 등 다수의 예이츠 작품이 언급 또는 인용되고 있다. 그 중 《그는 시시각각 젊어진다. He grows younger every second》(p.214) 라는 구절을 포함하는 「양치기와 염소치기」는, 회춘과 치유의 구조물 〈치료탑〉의 상상력에 직접적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작품들에서 〈치료탑〉을 통해 작가 오에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세계관과 메시지는 「탑(The Tower)」이라는 시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쿠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아내 리쓰코에게 보낸 짝막한 통신과, 그 통신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화자 리쓰코의 「탑(The Tower)」의 독해를 통해 드러난다. 당시, 사쿠는 미·일 합동 우주선단의 과학기술 책임자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¹⁴⁾으로 날아가 있는 상태였다.

사쿠가 보낸 우주통신문에는 마치 암호와도 같이 〈W.B.Y. 205, 218-216〉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그 표기가, W.B. 예이츠의 205번 시 「탑」의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것임을 그녀는 금세 알아차린다. 「탑」은 전체가 Ⅲ부로 이루어진 장시로, 『치료탑 흑성』에는 그 중 일부의 구절이 리쓰코의 감상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12) 이창배 『W.B.예이츠 시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2002, p.383

13) 위의 책, p.410

14)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것으로, 지구와 가장 조건이 많이 닮은 천체이다. 타이탄은 원래 올림포스의 신들보다도 이전에 존재했던 그리스의 신족(神族)을 일컫는 말로, 천공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후손들의 명칭이다. 태양계 주요 행성의 명칭은 이처럼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유래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56835>, <http://100.naver.com/100.nhn?docid=153967> 네이버두산백과 참조.

①거기에는 나이를 먹은 예이츠의 상념이라기보다는, 늙어서 쇠한 낡은 지구 그 자체가 딱딱한 지각 밑에서 불타고 있는 자신의 심장에게 하는 얘기가 울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은가—아, 마음아, 괴로운 마음아—이 회화(戲畵)를,/ 늙어빠진 나이가 개 꿈무니처럼 매달려 있는.》¹⁵⁾ (p.389)

②시의 마무리로 향하며, 예이츠는 노년을 맞이하는 자기 자신이 삶과 죽음에 관해 신비적인 신조(信條)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중략) 사람은 죽어서 다시 살고, 꿈꾸어 만들어 낸다. 달 저편의 파라다이스를. 그리고 이제 죽음에 얽힌 갖가지 일들이 작은 새의 지저킴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영혼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자, 라고 합니다……(중략) 어찌면 이 “The Tower”라는 시는, 그대로 〈치료탑〉이라고 하는 Tower의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p.390)

한편, 작중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위 인용문 ②의 리스크의 해석과 관련해 참조할만한 예이츠의 시 「탑」의 III부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③이제 나는 죽음을 대비해야겠다. /(중략)/ 드디어 육체의 파괴와, /피가 서서히 말라감과,/초조한 정신 착란과,/ 몽롱한 노쇠와,/ 아니 그보다 더한 불행—/ 친구들의 죽음과,/ 숨을 멎게 할 만큼 찬란히 빛나던/ 모든 눈의 죽음—/ 이런 것들 모두가 지평선이 희미해질 때/ 한낱 저녁 하늘의 구름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면 밀려오는 땅거미 속에서/ 졸린 듯이 울어대는 새소리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¹⁶⁾

인간의 늙음과 죽음, 재생에 대한 꿈을 노래하는 예이츠의 「탑」은 제목부터 〈치료탑〉을 연상시키며 본 작품과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인용문 ②와 다음 인용문 ④에서 보듯이 정작 그 시의 내용은 리스크에 의해 자연스런 늙음과 죽음을 긍정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어, 가장 ‘反치료탑’적인 세계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처럼 인식하는 〈치료

15) 《》 부분이 리스크에 의해 인용된 예이츠의 시구이다. 『치료탑 후성』에는 영어로 된 원시가 아니라 일본어 번역으로 인용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필자가 직역에 가깝게 한국어로 옮겼다. 참고로 영문학자 이창배에 의한 원시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아, 마음아, 어지러운 마음아—이 만화 같은 꽃/개 꿈무니에 붙어 있듯이 내게 붙어 있는/노쇠한 나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창배, 앞의 책, p.179

16) 이창배, 앞의 책, p.186

탑〉의 재생과 회춘의 힘은, 다음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리쓰코와 할머니 등 시계의 가치관을 계승하는 몇몇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분명히 거절되고 있다.

④장래 사쿠씨와 그 팀의 활약으로 이 지구에서 〈치료탑〉 건설이 가능하게 되어도, 나 자신은 〈치료탑〉을 경험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중략) 나는 타이군보다 빨리 그리고 사쿠씨보다도 빨리 늙어 자연스러운 삶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노쇠해진 나이를 개 꼬리처럼 매달고, 죽음의 방문을 하늘의 조각구름이나 새의 지저귀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새로운 생명의 재생이 있다는 것을, 에이츠의 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쿠씨는 특별히 그 점을 이 시를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p.392)

앞의 인용문 ①에 육체적인 늙음에 대한 시인의 한탄과 초조한 심정이 그려져 있었다면, 인용문 ③에서 알 수 있듯 시의 후반부에서는 그것이 죽음에 대비하는 시인의 초연한 자세로 바뀌어 있다. 죽음의 방문을 하늘의 조각구름이나 새의 지저귀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리쓰코의 생사관은, 이처럼 에이츠의 시 「탑(The Tower)」을 직접적인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중에는 실제로 그러한 자연스런 늙음과 죽음을 실천하는 인물이 있는데, 다름 아닌 ‘할머니’이다. 그의 죽음은 “자그마해진 몸속에 아주 조금 남은 생명의 물방울이 훌쩍 말라버리듯”(p.441)세상을 떠났다고 표현되고 있다. 또한 리쓰코 역시 할머니의 죽음을 자신에게 일어난 “큰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온화한 형태로 왔다”(p.441)고 얘기할 만큼 담담한 태도를 보인다. 결국, 육체적인 노쇠와 죽음에 대항하는 신비의 조형물 〈치료탑〉은, 똑같이 늙음과 죽음을 중심 소재로 한 에이츠의 「탑」으로부터 이름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지만, 실상 이 시에서 작가 오에가 자신의 소설적 메시지로써 살려내고자 한 부분은, 자연의 순리에 거역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또 다른 재생의 길을 예감하는, 신비적이며 ‘反치료탑’적인 시인의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4.2 〈치료탑〉과 히로시마

회복이나 치유를 생명 속에 원래부터 깃들여 스스로를 살려내는 자연스러운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신비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만약 그러하다면, 〈치료탑〉이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은 생명체의 한 부분으로 내장된 자연스런 회복의 힘이나 재생력을 소설적으로 과장되게 극대화시킨 것

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치료탑 혹성』의 모두(冒頭)와 결말에 배치된 〈히로시마〉는 바로 그 자연 속에 내재하는 재생의 힘을 대변한다. 사쿠의 우주여행을 앞두고 사쿠와 리쓰코가 헬기로 함께 떠난 히로시마 여행에서, 히로시마는 “길은 초록 일대(一帶)”(p.324)로 표현되고 있다. 그곳에 보존되어 있는 〈원폭 돔〉 역시 “산뜻한 초록”(p.328)에 둘러싸여 있다고 묘사된다. 원폭 돔은 원래 히로시마 현(県)의 산업 장려관 건물인데, 1945년 8월 원폭투하로 인해 골조만 남기고 꺾어져 파괴 당시의 참상을 전해주는 상징물로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유적이다. 작중에서도 원폭 돔은 “전 세기(前世紀)와 금세기에 걸쳐 경련을 일으키듯 되풀이된 핵의 비극의 최초의 장소”(p.323)로서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술했듯이 히로시마가 핵폭발로 인해 죽음의 땅으로 변한 지 10여년 후, 작가 오에는 히로시마를 취재하고 『히로시마 노트』라는 방문기를 남기고 있다. 거기에는 한때 죽음의 재로 뒤덮였던 히로시마가 ‘초록’으로 재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한 오에의 소회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원폭 후 히로시마의 땅에는 75년간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너무 성급하게 오판을 한 어리석은 예언자였을까? 오히려 그야말로 가장 솔직한 한계상황의 관측자였을 것이다. 그의 예언은 금방 뒤집혀졌다. 여름이 끝날 때쯤 내린 비는, 이 황폐의 땅에 곧 새로운 싹을 돋게 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곳에서 진짜 파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현미경으로 확대된 잎사귀의 세포가 뭐라 표현할 길 없이 미묘하게 흉측한 모양으로 일그러진 큰 개불알풀 표본을 보고, 다친 인간의 육체를 본 것과 같이 생생하고 본질적인 구토감에 휩싸였던 일을 떠올린다. 사실은 지금 초록이 무성한 히로시마의 모든 식물이 그처럼 치명적인 파괴를 입은 것은 아닐까?

그러나 눈앞의 초토에 파란 풀이 돋으면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상황이 나타날 때까지 절망적인 상상력을 멈춘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한계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히로시마에서 진실로 인간적으로 살아 나갈 방법이 없다. 수십 년간이나 초록색 풀이 무성해질 희망이 없는 땅에서, 인간이 자랄한 작은 노력을 쌓아 올려 나갈 기력을 지속시킬 수가 있겠는가? 잠깐 동안 풀의 장래에 대해 낙천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면.¹⁷⁾

17) 大江健三郎 『ヒロシマ・ノート』 岩波書店, 1999, pp.122-123. 번역은 『히로시마 노트』(오에겐자부로 저, 김춘미 역, 고려원, 1995, pp.198-200)에 의함.

히로시마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재생이 정말 진정한 재생인지, 아니면 내부에 치명적 파괴를 감춘 겉모습만의 ‘초록’인지, 오에는 미심쩍어한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않고, 헛된 희망에 취하지도 않는”¹⁸⁾ 자세를 스스로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비록 내면의 이상증상이 드러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회복의 기미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절망적인 예언과는 달리 히로시마에는 파란 풀이 곧 돋았다. 〈치료탑〉이란 아마도 오에가 히로시마에서 믿고 싶어 했던, “한계상황”을 타파하는 ‘희망’이나 ‘회복의 징후’를 과도하게 응축해서 형상화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응축된 신비한 힘의 비밀상성, 초현실성으로 인해 현실과는 다른 이공간(異空間)이라는 조건이 필요했고, 우주라는 SF적인 공간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회복’과 ‘희망’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히로시마의 재생력이야말로 〈치료탑〉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원폭 돔 안으로 들어가 머리 위로 드러난 돔의 골조를 바라보는 사쿠의 다음과 같은 얘기로도 뒷받침된다.

여기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건조된 〈치료탑〉이었는지도 모르겠군. 핵폭발의 거대한 에너지에 의해서 말이야. 치료가 육체의 생명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의 힘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것 같은……. 인류는 이곳에서 전 세기(前世紀)중에 혼을 재생시킬 수 있었는지도 몰라. ……이곳에 차례 차례 한 사람씩 들어가 〈치료탑〉 효과를 받아들였다더라면…… 정말로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p.328)

위의 인용문은 작중에서 〈치료탑〉의 ‘치료’라는 말의 함의가 비단 신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쿠는, 전 세기의 인간들이 히로시마 원폭 돔이라는 〈치료탑〉을 통해 영혼까지 치유 받을 수 있었다면, 우주 탈출을 무릅써야 할 정도로 인류 문명의 존속이 위협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쿠가 말하는 ‘전 세기의 치유받지 못한 영혼’의 실체는 곧, 히로시마의 가공할만한 참상을 경험하고도 경쟁적인 핵실험과 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동시대의 우리에게 다름 아닐 것이다. 실제로 오에는 프랑스의 사하라 사막에서의 핵실험을 비판하며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자신의 글 속에 인용해놓은 한스 게오르그 비드너라는 연구자의 글을 자신의 글 속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거기에는 유기체로서의 지구와, 그 지구 위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의 ‘잘못’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18) 위의 책, p.123.

드콜 장군이 사하라에서 핵폭발을 장려한다. 그러나 비드너는 말한다. 지구는 인체와 유사한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는 체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다시 말해 위(胃)의 부위에 위치한다. 인간이 〈벨트 아래〉를 가격 당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분이 나빠지고 숨이 막히고 그리고 정신을 잃는다. / 마찬가지로 지구의 위의 부분에 일어난 핵폭발에 의해 그 육체 부위의 필요불가결한 분비물, 〈소화〉에 꼭 필요한 분비물의 상태가 나빠지고, 지구 유기체에 일종의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네바다 사막과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것처럼.¹⁹⁾

오에는 작가 훗타 요시에(堀田善衛)에게 보내는 네 통의 편지에서도, 핵무기와 핵 대치 상황의 동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결코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가 내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강렬한 희구의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멸망의 현실이 초래되기 전에 멸망을 철저히 묵시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문학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다는 작가로서의 소명의식도 같은 글에서 함께 피력하고 있다.²⁰⁾

결국 〈치료탑〉이라는 신비한 건조물은 초토(焦土)에서 회복한 히로시마의 재생력과, 끝내 파괴되지 않을 존재로서의 인간의 생명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작가 오에가 〈치료탑〉 시리즈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지구와 인류의 묵시록적인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은 마치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곰돌이 푸》의 〈통행금지〉 예계처럼, 혹은 호화 유람선 ‘타이태닉호’의 침몰을 예계하는 픽션 ‘타이탄호’의 침몰처럼, 묵시록적인 미래를 예계하고 그러한 미래의 도래로부터 인류의 구원을 희구하는 작가 오에의 간절한 기도문과도 같은 소설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로의 냉각 기능은 맥없이 멈추었다. 당시 방사능 유출과 그에 따른 피폭(被曝) 가능

インデストラクティビリティ

19)大江健三郎「破壊されえぬことの顯現へ向けて」『小説のたぐらみ、知の楽しみ』新潮社、1994、p.240

ほったよしえ

20)大江健三郎「核時代のユートピア——堀田善衛氏への四通の手紙」『小説のたぐらみ、知の楽しみ』新潮社、1994、pp.210-217 참조.

성은 정말로 ‘소설’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서 일본 전역에 걸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인류가 얼마든지 제어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원자력 신화가 무너지고, 언제라도 견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이라는 에너지 창출 방식의 지속 여부가 인류에게 화급한 과제로 던져지던 그 즈음, 프랑스 르몽드지는 오에 겐자부로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에서, 오에는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무분별한 것인지를 증명한 이번 사태와 같은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 하는 것은 히로시마 희생자에 대한 최악의 배신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인은 원폭투하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핵에너지를 산업효율의 관점, 다시 말해 성장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원전 의존의 에너지 정책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²¹⁾

일본의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 역시, “원전은 자본=국가가 필사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며, 일본의 경우, 원전 필요의 정당화가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계획” 하에 “한국전쟁 무렵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자신 1960년의 반안보(反安保) 시위 참가 이후 50년 만에 반원전·탈원전 시위에 적극 참가하면서, 시민들의 직접행동(데모)이 존재하는 사회야말로, 주권자가 존재하는 사회라고 역설하고 있다.²²⁾

날마다 세습 검찰량과 방사능 대책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던 2011년 후쿠시마의 재해는, 어느덧 오에의 ‘근미래’ SF의 그 ‘근미래’를 ‘현재’로서 살게 된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불행하게도 오에 소설 속의 예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다. 오에가 두 소설 속에서 ‘다카시’같은 삶의 태도와 ‘시게’같은 삶의 태도를 통해 제기하는 과학기술과 현대 문명의 명암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그대로 동시대인들에게 던져진 딜레마이자 숙제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지구에는 자연재해와 문명으로 인한 재앙이 번갈아 닥치고 있다. 오에가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이미 20년 전에 생각해야 했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멸망과 구원의 기로에 바짝 다가서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원폭 돔이 인류의 최초의 〈치료탑〉이라고 한 사쿠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탑〉 시리즈는, 인류와 지구의 ‘재생’이 다름 아닌 과거의 교훈을 통한 우리 모두의 성찰— ‘영혼의 치유’를 통한, 지배와 차별 및 폭력의 세계관의 폐기—에 달려 있다는, 오에의 시급한 메시지를 타전하는 소설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탑〉 시리즈에서 얘기하는 ‘영혼의 치유’란, 개

21) 「大江さん、日本は再び核の犠牲に 仏紙と會見」 2011/03/17 08:49 【共同通信】
<http://www.47news.jp/CN/201103/CN2011031701000134.html>(검색일 2011.9.25)
22) 柄谷行人, 인터뷰 기사 『週刊讀書人』 2011, 6, 17 (인용은, 김형수 역 「반원전 활동이 일본을 변하게 한다」 『녹색평론』 120호, 2011, 9-10월호, pp.180-188에 의함)

개의 생명이 평등한 존엄으로 다시금 재생의 사이클 속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도록, 생각과 삶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바로 잡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에의 〈치료탑〉은 현대인의 전복된 가치체계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내일’의 생존을 봉쇄하지 않도록, 왜곡되고 전복된 ‘오늘’의 총체적인 치유를 촉구하는 작가의 절박한 예계로서 읽어야 할 소설이다.

【참고 문헌】

- 가라타니 고진, 김형수 역(2011) 「반원전 활동이 일본을 변하게 한다」 『녹색평론』 120호, 2011, 9-10월호, pp.180-188
- 로즈마리 레드퍼드 류터, 전현식 역(2000), 『가이아와 하느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35-137
- 엘리아데, 이은봉 역(1997) 『종교형태론』 한길사, pp.528-529
- 오에 겐자부로, 김춘미 역(1995) 『히로시마 노트』 고려원, pp.198-200, pp.293-295.
- 이창배(2002) 『W.B.에이즈 시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pp.166-179, pp.383-410.
- 岩崎稔ほか編(2008) 『戦後日本スタディーズ 3』 紀伊国屋書店, pp.26-28
- 大江健三郎 (1999) 『ヒロシマ・ノート』 岩波書店, pp.122-123, pp.184-185.
- 大江健三郎 (1996) 『大江健三郎小説 6』 新潮社,
- 大江健三郎 (1994) 『小説のたぐらみ、知の楽しみ』 新潮社, pp.210-217, p.221, p.240.
- 小森陽一(1992) 「未来の経験—大江健三郎『治療塔』と『治療塔惑星』をめぐって」 『文学』 岩波書店, 第3卷第2号, p.27.

要 旨

大江健三郎が一九九〇年代に書いた二つの小説『治療塔』と『治療塔惑星』は、SF的想像力が展開する〈近未来小説〉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の論文では、最後まで解けない謎として残る〈治療塔〉の多義的で象徴的な意味を追究するとともに、未来の地球と人類の姿を通して作者が科学テクノロジーに基づく現代文明を如何なる観点から捉え批評しているのかを検討した。そして『治療塔』と『治療塔惑星』の執筆中に可視化する冷戦の終息と湾岸戦争の勃発が、二つの小説の中では人類の過去と現在、未来を自由な想像力で行き来しながら寓意的なメッセージとして描かれており、結局それは、変動する世界秩序の中で形を変えて新たに頭をもたげる植民主義への作者の警戒にほかならないことをも確認できた。

原爆ドームは、もしかしたら地球上に最初に建造された〈治療塔〉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朔(男の主人公)の呟きから分かるように、〈治療塔〉連作は、人類と地球の本当の再生はわれわれの省察に拠るものであるという大江の緊急のメッセージを伝える小説である。過去の教訓を踏まえた上で魂の治癒を図り、支配・差別・暴力の世界観の廃棄を可能にするわれわれの省察は、とりもなおさず、個々の生命が平等に自らの尊厳を取り戻し再び再生のサイクルの中に置かれることを願って、各自考え方と生き方を根本から建て直すことを意味する。要するに、大江健三郎の〈治療塔〉連作は、現代人の転覆した価値観やそれに伴う具体的な生活様式が‘明日’の生存を封鎖しないように、歪んでいる‘今日’の総体的な治癒を促す作者の予戒として書かれた小説である。

キーワード： 核, 科学文明, 終末, 植民主義, 湾岸戦争, エコロジー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